



사순절 묵상집
2022





비아 돌라로사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이영길 목사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마가복음 15:17)

2세 소설가로 잘 알려진 이창래 소설가가 있습니다. The Surrendered라는 소설을 썼는데 첫 장면은 6/25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는 2세 소설가가 6/25장면을 그토록 실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쓴 것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느낄수 없었던 것을 소설로 통해서 전쟁의 아픔을 가슴속에 와 닿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소설가는 6/25를 전혀 겪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1965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3살에 미국으로 이민 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소설가가 됩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6/25 전쟁 장면을 그토록 실감나게 써내려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상상력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사용해서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묵상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14장면으로 나눠서 상생케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하루 한 곳에 서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한다면 3차례 주님의 고난의 길(비아 돌라로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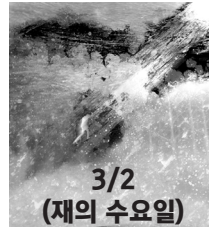
올해도 수고해 주신 홍보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1지점 :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재판을 받은 곳.
- 제2지점 :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흉포를 입고 희롱당한 곳.
- 제3지점 :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 쓰러진 곳.
- 제4지점 : 예수가 슬퍼하는 마리아를 만난 곳.
- 제5지점 : 시몬이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진 곳.
- 제6지점 : 성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의 얼굴을 닦아준 곳.
- 제7지점 : 예수가 두번째로 쓰러진 곳.
- 제8지점 : 예수가 마리아를 위로한 곳.
- 제9지점 : 예수가 세번째로 쓰러진 곳.
- 제10지점 : 예수가 옷 벗김을 당한 곳
- 제11지점 :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곳.
- 제12지점 :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한 곳.
- 제13지점 : 예수의 시신을 놓았던 곳.
- 제14지점 : 예수가 묻힌 곳

새로운 길...

캐들린 롱 보스트롬 목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42)



얼마나 봄을 기다리는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
레이스 달린 커튼을 사랑이며,
꽃들은 피어나
너른 들판을 꾸미고,
따사로운 햇빛은 깔깔거리며
냉기를 몰아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 하나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한번도 유혹에 굴복한 적이 없는
흠먼지 묻은 두터운 두 발로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다.

봄을 갈망하며
새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리오니
걸음마다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버릴지 가르쳐 주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로 지날 때
영혼의 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PW Horizon Bible Study-2005-2006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에서 발췌)

모든 계절의 주인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나의 굴렁쇠는

진정원 집사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5)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중요도와 긴급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하고 급박한 일

중요하고 급박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고 급박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박하지도 않은 일

하나님 허락하시는 매일의 모든 분, 초에 불필요한 것이 없을테지만, 중요하고 급박한 일에만 집중하는 저는 매일의 바쁨에 허덕이며 주님과와의 시간에 인색해져 있는 자신을 자주 보게됩니다.

올해의 사순절 시간 동안에는 중요하지만 당장 급박하지 않은 일에,

절제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으로 할애해 나가는 2022 사순절을 계획하여 봅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하루,

제대로 먹고 운동하며 건강 지키는 일,

드라마 보기보다는 책 읽으며 실력 쌓는 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

미래를 계획하는 일,

이런 일들에 중심에 두고 나의 시간의 굴렁쇠를 신나게 굴리는 모습을 주님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의 굴렁쇠는 때로는 천천히 갈테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을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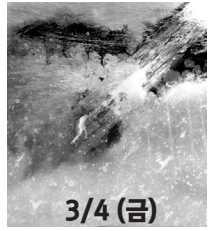
멈추는 순간 나의 굴렁쇠는 넘어지고 서버림을 알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굴러가게 노력하려 합니다.

굴렁쇠를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이게 에너지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임심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40일간의 아름다운 여정을 기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완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께 사로잡힌 삶

이석원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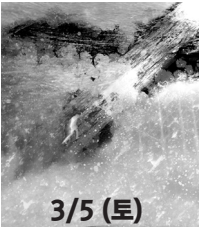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 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8: 33-34)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경홀히 여기는 삶을 살던 제게 오서 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자녀로 완전히 변화 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녀의 특권과 기쁨을 알지 못한채,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포기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자라도록 돕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제가 무엇인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나이까. 저의 죄를 덮어주시고, 없다고 하시고, 이기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찌 안다고 하겠나이까. 주님을 알아가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을수록 참으로 저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사망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찬양과 감사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쉬지 마시고 운동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가 성령안에, 성령이 제 안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저의 일생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온통 나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의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곤란과 역경을 주님의 눈과 심장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발을 움직이고 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 빛진 자로되

김영순 권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Our vision is for all Men in our Movement to experience:

The Power of One God, The Value of One Man, The **Leverage** of One Team Resulting in Spiritual Reproduction among Businessmen throughout the World.

위는 CBMC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한국에 있는 기독교실업인협회의 모체)의 Vision Statement이다. 나의 묵상은 뜻을 잘 몰랐던 ‘leverage’ 라는 단어의 뜻을 찾다가 시작되었다.

lever는 지렛대, leverage는 [(네이버 사전) 지렛대의 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권력, 영향력; 지렛대식 투자, 차입 자본 이용 (차입금을 이용한 기업 매수 따위, 소액 착수금 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는 것); (다음 사전) 기업 경영에서 고정적 지출(차입금, 사채)과 고정적 부담 비용(기계, 설비)이 lever(지렛대)와 같은 중심적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 구조상에서 타인 자본 비용이 클수록 레버리지 가 높아, highly leverage라고 하면 ‘엄청나게 빛을 많이 진’ 이란 뜻이다. 일반적으로 leverage는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타동사: (미) [사람, 법인에] 차입금으로 투기하게 하다; (Investopia.com) Leverage is an investment strategy of using borrowed money—specifically, the use of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or borrowed capital—to increase the potential return of an investment. Leverage refers to the use of debt (borrowed funds) to amplify returns from an investment or project.] 라는 뜻이라고 한다.

경영,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듯한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 단어를 경험(experience)하게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영향력’이란 뜻을 가진 영어가 많을 텐데 어찌하든 빛을 저야 하고 ‘노려야’ 하는 절차와 투기라는 단어로 설명할 만큼 어찌면 나쁘게 보이는 의도를 수반하는 단어… 그리고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8:12,13 말씀이다.

1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2.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었던, 주인의 빛을 제멋대로 부분 탐감해 주던 나를 영리한 청지기의 예화를 드시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9-11.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나는 내가 엄청 떳떳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저 ‘빛진 자’네... 투기나 ‘노리고’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영적 재생산(Spiritual Reproduction: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2:2))을 통한 Great Commission(지상명령: 마태복음 28:18-20)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나는 의도적이었지? 세상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난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았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투자로 구원받은 제가 그 투자에 합당한 이익을 주님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하며 그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재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보라 I : 한 가족

이영길 목사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돌려 앉았다가 여짜오되 ~~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31-35)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은 죄의 참회와 함께 절제 및 구제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숨어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축복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 주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번째 하신 일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일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많이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나병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처럼 병고침의 사역으로 공생애의 서곡을 장식한 후, 그리고는 열두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중략)

사실 주님은 지금 12사도를 세우시고 공생애를 정식으로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지만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 아주 큰 고통을 치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줄 압니다. 얼마전에 팬데믹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survey를 어느 기관이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45% 사람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고 하면서 자주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3%로 자신의 생각에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고 했고, 42%가 휴가를 더 잘 가져야겠다고... 그리고 자신감을 더 잘 관리해야겠다고도 41%가 답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해서 가족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팬데믹도 어떻게 보면 광야 시간인데 광야가 1년씩이나 지나서 그런지 관심은 자기 자신과 가족으로 향하게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개인주의적이 되고 더 이기주의적이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러한 유래 없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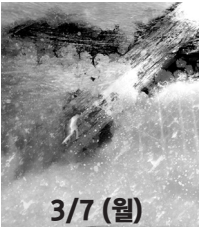
그러면 누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수 있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누가 온 인류를 보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바라고 꿈꾸는 사람이 될까요? 이러한 꿈을 꾀다면 이들이야말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했던 우주비행사 스킷 켈리는 아주 인상적인 말을 전해줍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이전과 색다른 눈으로 지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장벽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보는 지구와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니 미래의 인류를 보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킷 켈리 우주인이 되어야 할까요? 대답은 yes & no. 먼저 no인 이유는, 우주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Yes인 이유는 우리도 우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스킷 켈리와 같은 우주인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아니 하늘 높이 오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2021. 2. 21 사순절 첫째주일 설교중에서)



섬기는 자 혹은 종 (Servant or Slave)

한문수 장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 43-44)

3/7 (월)

살아오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다. 또한 뭐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속한 어느 그룹이든지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도 있게 마련이다. 순간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은 어린이 회장, 반장, 실장 등이 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아도 그룹마다 리더가 있고 물론 교회에서도 각 부서별로 리더들이 있다.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 모두는 자의 든 타의 든 현재 어느 그룹에서 리더가 되어 있거나 삶의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리더였으리라 생각된다.

최근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섬기는 자’ (servant), 그리고 ‘종’ (slave) 이란 단어였다. 어느 그룹에서 든 리더가 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회의 구역장, 성경공부 리더, 집사 회장/간사/부서장, 남선/여선교회 회장, 각 부서장, 교회학교 선생님들, 집사, 장로,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리더들 한분 한분을 떠올리며 그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을 생각해보니 내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며 더욱 겸손하게 섬겨야 하겠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 단체에서는 리더로 선출된 사람은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자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하다. 이 세상에는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시의원, 구청장 등 참으로 많은 리더들이 있다. 그들이 진정한 ‘섬기는 자’ 혹은 ‘종’의 자세로 임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성공은 자기를 높이는 것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영광을 얻는 방법임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삼으려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섬기는 자’, 혹은 ‘종’의 의미를 생각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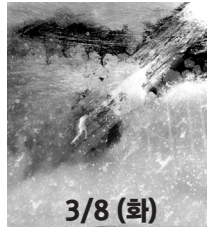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 11)”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Luke 14:11)

이제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시려는 축복의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여 오늘 혹은 올해, 아니 몇 십 년 안에도 다 이루어 지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려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목상하며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루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아빠 아버지

이소은 집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충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람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1:3-7)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십니다.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그 귀한 생명책에 제 이름을 세겨 주셨습니다. 저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로 친히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귀한 핏값으로 저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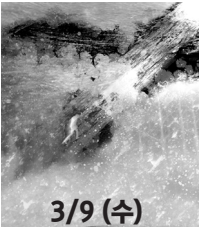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해주셨고, 좋은 영적 리더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그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망이 현실이 되는, 혹은 소망 그 자체의 주님 안에서의 추억으로 저는 새로운 고난에 소망을 꿈꾸는 자로 서 갑니다.

죄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현실됨에 대한 감사를 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교만을 범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었음이 너무나 확연한데도 마치 제가 그것의 주인공인양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넓은 은혜에 다시 고개숙이고 안아달라고 들어가 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속량이 아니면 제가 감히 그럴 수 없었을텐데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세요.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 은혜를 잊지 않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는 네 생명이시요

최정환 집사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22-25)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신명기30:20) 오래전, 평소 친분이던 어느 목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이다.

“목사님, 참 한심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저 스스로가 누군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짧게 웃으시고는 이렇게 답하셨다. “집사님, 그 질문은 우리가 죽는날까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신 후 이렇게 더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질문의 깊이는 달라지지요.”

본문 말씀을 접한다. 죽음, 삶, 자기, 목숨... 이러한 단어들에 시선이 멈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육체의 생명만은 아닌듯 하다.

어떻게 살던 육의 명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목숨이란 무엇인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행동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구함에 속하는 것인가.

본문에서는 세상을 얻으려 하는 것을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고자 함의 예로 들고 있다.

세상을 얻으려 하는 것이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를, 목숨을 얻게하지 못한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셨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가 하신 일을 살펴본다. 평소에 하신 일은 스스로 하시고 싶어하신 일들이다. 치유와 가르침.

반면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신, 아니, 당하신 일이 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한번 당하신 일인가. 매일 당하신 일인가.

한번 일어났는지 몰라도 그분은 매일 십자가를 향해 걸어 가셨다.

하시고 싶어 하시며 하신일들 - 치유와 가르침 - 결국 그 일들이 하시고 싶지 않으셨으나 당하셨던 일, 곧 자신을 부인하는 일, 바로 그 십자가로 이끌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상반된 일이 아닐수도 있다.
외려 같아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목숨이란 무엇인가.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얻는다는 목숨이란.

“그는 네 생명이시요… (신명기 30:20)”. 본문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나의 질문에 언어적인 답을 준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한다.

누가, 무엇이 하나님인가...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보내심 받은 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리신 분.

그분이 짧은 시간을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가신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를 통해 그 분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

나는 그분에 대한 기록을 보며 상상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과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배우지만

더 이상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분과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내가 알고 있는 생명, 목숨이란 단어의 느낌과 성경 속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과 목숨의 정의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느껴져야 한다.

느낄수 없는 단어는 그저 빈 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수도사들이 해 온 것처럼 나를 그분 안에서 찾아간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를 부인하는 일과 함께 하려 하고 바다에 들어가 녹아 없으며 자신을 발견하는 소금인형같이 살아오며 자의와 타의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의 요소를 하나씩 없애며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졌던 하나님의 생기를 찾아간다.

찾게하소서. 찾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박성영 집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3/10 (목)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 친구들을 따라 여름성경학교를 다녀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을 꿈꾸고 온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저는 “누가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좋다고 했어?”라고 불평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던 저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직면해야 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험난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때로는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힘든 하루하루를 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년 넘게 붙들고 있었던 제 삶속에서 이르고자 발버둥 쳤던 세상적인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한 그 시간들은 그 당시에는 힘들게만 느껴지고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어둠속의 터널 같았던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순간순간이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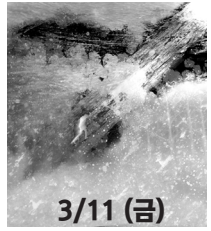
죄인이었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복음이 믿어지며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입술로 고백한 이후 하루하루의 삶속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처한 현실은 짜증과 불평만 가득했던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의 평안함을 느끼며 감사할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를 고민하고 결정했다면 지금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속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저의 삶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드릴 것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팬데믹을 낭비하지 마십시오(1)

윤병준 집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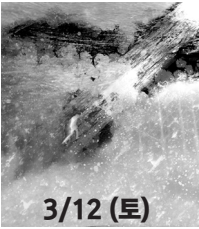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중이실 때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원제: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소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전립선 암으로 투병중이실 때 수술을 앞두고 목상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아직 한글 번역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는 아버지를 위해서 틈틈이 이 소책자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마친 소책자를 아버지께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작은 선물로 전해 드렸지만, 번역을 마치고 보니 그 소책자는 오히려 번역을 하는 제게 더 큰 선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큰 질병, 혹은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은 물론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실마리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예전에 번역했던 그 소책자를 들춰 보다가 “암”이라는 단어를 “팬데믹”으로 바꾸면 그 때 배우고 목상했던 내용들이 지금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 열한 개의 짧은 챕터를 가운데 여섯번째 챕터의 내용을 나눠봅니다. 팬데믹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보스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 그것은 팬데믹을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팬데믹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다릅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팬데믹이 우리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팬데믹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젖을 떼고 (離乳:이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족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팬데믹은 우리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빌3:8),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빌1:2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팬데믹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섭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김현지 권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5)

3/12 (토)

나의 어머니의 증조 할아버지가 만주 목당강에서 세고도리라고하는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을 전도받고, 세례까지 받았다. 어려서 부모님들 끼리 약속한 “당신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겠다” 라는 약속대로 목당강에서 조선 함경남도 태산진으로 색시를 찾아 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지 고장 이름인지, 모르는 들어 본 일 조차 없는 예수를 전도하고 결혼했다. 목당강에 가서 세고도리 선교사를 모시고 와서 온 집안과 근처에 전도하여 해산진 뿐만 아니라, 삼수, 갑산, 무산, 신갈파, 중강진까지 전도하여 마음대로 백지 땅에 기독교가 퍼졌고, 세고도리 선교사가 올 때 마다 세례교인이 기적으로 퍼졌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해가 1984년 이라고해서, 우리집은 기독교인 된지 몇 년이 되느냐고 물어 어머니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했더니 한국 기독교 100주년 해보다 12년 먼저 한국 압록강가에 여기 저기 가정교회와 있었다 한다. 마침 외할아버지가 서당을 하셨음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았고, 할머니도 보조훈장을 하셨기에 저녁 늦게 까지 공부를 시키고는 국수를 먹여서 보냈다. 예수를 믿으면 공부하게되고 가난한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세고도리 선교사가 종종 왔다갔다 했단다. 어머니도 “세고도리”라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느 때 성경공부 시간에 이야기가 나와서(이요한 목사님의 강의식 공부시간에) 어떤 한분이 목당강에 Scotland선교사가 있었던 것을 찾아 냈단다

내가 7살때 외할머니로 부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배웠는데 하루는 할머니께 내가 모르는것을 질문했다.

나: 할머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 예수님은 아는데, 성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어려서 성령을 성신이라고 했음)

할머니: 니 정신이 있느냐?(함경도 사투리로 너를 니라고 함)

나: 그럼요, 내가 정신이 있지, 정신이 없어 보이시나요?

할머니: 그럼 니 정신을 할머니에게 보여줘

나:-----?? 내 정신을 어떻게 보여 드리지요?

할머니: 성신이 누군가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신이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신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아시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성신이라고 한다.

나: 아하하--- 그렇구나. 알았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좋은 일을 하고, 에서는 나쁜 일만 한것도 아닌데..

할머니: 너 할아버지와 나 할머니와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지?

나: 할아버지요

할머니: 왜?

나: 할머니는 기도를 많이 길게 해서 내가 잠이 들고는 모두들 “아멘”하는 소리도 모르고 그냥 자면(어떤 때는 아멘 소리에 깰 때도 있음) 할머니가 잠이 든 내 궁뎅이를 한탕 때려서 깨지만 할아버지는 기도를 짧게 하시고는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 하니 나는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할머니: 하나님도 너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 속을 다 아시고 나쁜 생각을 하는지 좋은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거든.

이쁜 만 아니고 항상 할머니 곁에 앉아서 말썽을 많이 부렸다. 이제 나도 그때 할머니 나이가 되어 옛날 생각을 하면 우리 할머니는 참으로 지혜있고 법을 잘 지키는 믿음 좋은 바리새인 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가 되니 나는 후에 자손들에게 어떤 할미가 될까. 며칠 후면 증조할미가 된다.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귀도 멀고, 무릎이 힘이 없어서 아파서 영기적거리고,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리는 선수요, 모든 일에 바보 그대로이다. 생각하면 91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평안히 잘 지낸 것은 사사건건에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이다. 놀라운 역사도 인생 70이었는데 잘 살아야 90이라고.. 하지만 그 위의 위 91년간 자신으로는 길고도 어찌면 은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눈질하지 않고 영육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평안을 전문으로 산것은 성령께서 영육을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해주신 은혜인 것이다. 그랬다고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평안이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힘겨워 쓰러지는 일도,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랑과 생각지 않은 광명에, 감사하면서 누구보다도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산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령이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 하나님. 성령님께 감사한 마음 끝이 없고 말로 글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에 가 버리신것이 아니라. 놀라운 힘을 가지신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그 은혜에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육체의 노쇠는 오히려 오순절을 맞을 때 마다 오히려 새로이 마음의 멋있는 삶을 후손에게 남기고 싶다. 또 노력도 하지만, 감사와 찬송을 해 봤자, 글로도 말로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몇날 남지 않은 삶을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쟁이의 믿음의 멋을 마음껏 부려서 산 증거를 후손에게 남기고 싶다.

나의 자손들의 나를 통해 주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보라 II : 새 하늘과 새 땅

이영길 목사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베드로 후서 3:8-13)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에 왕이 되어서 33세에 전쟁터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나라를 확장하다가 폭주와 과로로 인해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에서 술에 취한 채 정신을 잃었는데 간신히 깨어났을 때 부하 장군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후임자를 누구로 세우시겠습니까?” “The strongest one.” 알렉산더 대왕다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나라로 갈라지는데 다섯 명의 장군이 나라를 쪼갰 것입니다. 다섯 명의 장군들은 스스로 strongest one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가장 강한 자를 후계자로 세우고 싶어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실까요? 주님의 후계자가 누구냐고 꼭 집어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12사도라고 생각하면 무난하고 물론 사도바울까지 합하면 13사도가 됩니다. 그래도 그중 한 사람을 꼽는다면 명실공히 수제자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지은 서신인데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삼으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한 마디로 시간에 대해서 자유하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이 표현도 좀 철학적인 아니 애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시간에 강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주물럭 주물럭 할수 있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반면 알렉산더는 공간 안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서 제일 강한 자를 후계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곧 참 신앙인은 공간 안에 강한 자가 아니라 시간 안에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 군인들은 공간 안에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세계라는 공간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 강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한 것입니다.

반면 주님은 시간 안에 강한 자였습니다. 공간 안에 강한 로마군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박히셨지만 끝내 시간 안에 강한 자로서 최후 승리를 맞보신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정말로 멋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시간 안에서 강한 자들은 공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마디로 ‘인내’입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서 강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또한 주님의 후계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자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공간 안에 강한 자들은 인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0살 때 왕이 되고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국경을 넓혔으며 계속 영토를 확장하려다가 온갖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33세에 요절하고만 것입니다. 그가 좀 인내할 줄 알았더라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구 전체를 한 손에 넣을수도 있었겠죠….

반면 시간 안에 강한 자들은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이긴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시간의 주체가 되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시간 안에 인내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공간을 어떻게 이길까요? (중략)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공간 안에서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행한 것을 회개하고 절제와 구제로 스스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남은 일년 주님께 시간을 바치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곧 공간 안에서 strongest가 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시간 안에서 strongest 곧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사는 성도가 될 것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베드로는 계속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공간은 시간 안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계속 남는 것은 우리들의 시간 안에서의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기본은 인내이고요. 곧 거룩한 행실은 인내를 통해 완성됩니다.

(2021. 2. 28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 중에서)



One Body

안성민 교우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nor free, there is no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atians 3:28 ESV)

The principle of karma believes that the quality of our intentions and actions we output into the world and those that return are equal. It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schools of Indian religions and their concept of rebirth. Obviously, we don't believe in these concepts, but... why? For example, there is an unignorable similarity in setting up good things for the life after death, whether it be eternal life or a reborn life. Karma is also similar to our Golden Rule – “... whatever you wish that others would do to you, do also to them...” (Matthew 7:12 ESV). So why believe Christianity when these are so similar?

Even if these ideas sound flawless, I think we should eventually land on a reason for choosing Christianity. Every religion will be built to be self-consistent; there is (probably) no religion where the logic is intentionally flawed. So, I think we should put in some time to scrutinize why we believe in Jesus Christ rather than something else - especially, if you grew up in the church like me. It's a way of affirming your identity as a Christian and strengthening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Of course, my defense of Christianity shouldn't be your defense. It's just “a” defense I thought was interesting and worth sharing.

To me, where karma falls short is that it's apathetic. It's great if you, individually, don't want to do bad so bad doesn't come to you, but the flip side of this is: if bad things happen to someone, then it becomes their fault because they did something bad in the past. It's classic victim blaming. But that doesn't feel right, and it's not what Jesus shows us to do.

I recently encountered the question of a struggling Christian: “Where was Jesus during the Holocaust?” There was so much hurt in that question. I didn't know how to respond. I never thought deeply about it before. But then, I saw someone else answer something like, “Jesus was there in the labor camps, being tortured and beaten and murdered with them.”

Jesus doesn't blame us for our suffering. He didn't reprimand the sinners or the weak or the oppressed. He always comforted them first, listened to them, understood them... became them. We may not be able to solve each other's problems, but just like Jesus, we can sympathize and offer a helping hand. This is why sin, in my view, doesn't end at the personal level, but extends to the communal. Your struggles are my struggles, your sin is my sin. No one is better than anyone, because collectively, we are all sinners, and all the suffering in this world is precisely because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God uses even this such that His will be d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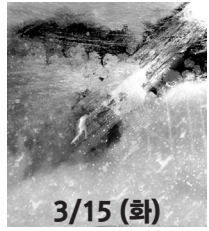
So, let us run the race together. Supporting each other, as one body.

Heavenly God, may we be one body, representing your ability to heal and standing up for those who are suffering, whether within our church or in our communities. Amen.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김경희 권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시편 53:2)



내가 아주 어릴적, 한 다섯살 쯤이었을 때 언니의 손을 잡고 예쁜 풍선 하나를 사러 간다고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다. 너무나 먼 동네까지 걸어 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른다는 사실을 언니가 깨닫기도 전에 해가 떨어져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소방관들이 출동되어 우리를 찾아내 어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시간까지 우리를 찾느라 애를 태웠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것과는 좀 다르면서도 비슷한 하나님의 찾으심을 생각해 본다.

시편 53:2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애를 태우며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신다.

‘지각이 있는 자’ 와 ‘하나님을 찾는자’ 라고 하셨다. 찾고 또 찾으시다가 보이지 않자 메신저로 아들, 예수님을 결국 보내셔야 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도 더럽고 차가운 마구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외모로, 명품으로, 번쩍이는 보석으로, 혹은 멋진 차로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냄새나고 추한 속사람을 옷처럼 걸치고 다닌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반짝 띄는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걸치기에는 너무 누추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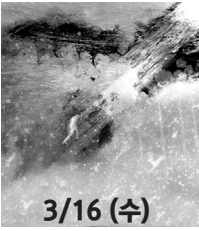
비록 우리의 처지가 낮고 초라하더라도 맑은 영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온 인류의 최고의 명절인 이 부활절은 그분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지시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목은 때를 씻자!

더러운 껍질을 벗어 버리자!

쉬지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자!

주님, 제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날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

손영권 집사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누가복음 15:24)

3/16 (수)

누가복음 15장 11-3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생각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이미 구원 받은 크리스천인데…’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리 시원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다시 더 읽어보았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질’ 지낸 그 둘째 아들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바로 그 분깃으로 받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어 더 궁핍해 지고, 그것도 모자라 돼지를 치며 돼지 밥이라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보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13-16절). 그런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그 풍족함…(17절),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구원받기로…(18-19절) 그리고 그는 그 결심을 바로 실천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20-21절). 그러자 놀랍게도 좋은 의미의 적반하장의 결과가 일어났다. 자신을 품군의 하나로 받아주셔도 감지덕지할텐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히려 환대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신을 발에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셨다(22-24절).

돼지를 치며 배고픔에 힘들어하던 그 둘째 아들에게 왔던 깨달음처럼 나도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아직 돌아가지 않은 ‘탕자’의 모습과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로마서 7:19)’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그런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사순절은 회개, 기도, 절제,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수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다. 이번 2022년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 안에 있는 많은 악한 것들 중 하나라도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절제해서, 그 둘째 아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도 기뻐하시기를 기원해본다.

하나님, 저의 악한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렁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마옵소서” (예레미야애가 3: 55-56)

3/17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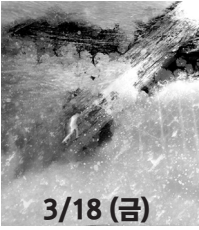
세상이 주는 육신의 고통을 받으며 어제도 오늘도 내 하루가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이 땅에 보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드려 기도로 아픔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 삶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약 기운이 퍼지면 걷기도 하고 손으로 일기를 쓰기도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는다는게 신기할 만큼 감사합니다. 나의 나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쳐보며 이런 아픔조차도 하나님 은혜임을 잊지않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시간 바뀌는 나의 건강상태로 가족 자신들의 스케줄을 변경하고 직장과 학교를 오가며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서도 불평없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고통이 세상의 말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이 계심으로 이 아픔의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내게 나를 더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아픔은 내게 먼 훗날의 축복이되고 언제나 혼자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되게 합니다. 통증속에 잠들기를 여러번, 하지만 이내 메아리 처럼 들려오는 음성, 나도 많이 아팠단다. 너는 누워있어도 아프지만 난 십자가에 내 몸을 메달아 여러 군중들 앞에 나를 내놓아야만 했단다... 꿈처럼 들리는 음성에 다시 나를 고쳐 세우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생각하면 아찔할만큼 감사합니다. 아직한 눈으로 보기도하고 머리로 생각도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것을...

혼자가 아닌 신앙공동체를 만나지 않았는가! 이게 다 축복입니다. 삶의 수많은 계단을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두벅두벅 지쳐도 옆을 바라보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 든든한 새벽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내어놓음에 난 다시한번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삶을 닮아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이 땅에서 헛되지 않으며 저땅 끝 아주 메마른 곳에서라도 열매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OTC 장교 부활

김문소 장로

“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3/18 (금)

나는 지난 10여년간 척추 협착증으로 고통속에서 지내 왔다. 척추협착증 (Spinal Stenosis) 이란 척추 사이가 좁아져서 척추를 지나 가는 신경을 눌러서 오는 만성병이다. 증상은 허리, 엉덩이, 다리, 발에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내가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을 이웃도, 교인들도 보아 왔다.

한 3년전부터 척추협착증, 당뇨, 고혈압 등 나의 노인병 치료와 예방 차원으로 우리 동네 길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후에 세 바퀴 걸어서 하루에 약 만보를 걸었다. 한번 돌면 10분에 천여보, 3번 돌면 30분에 3천여보를 3번 돌기와 집에서 걷는 것까지 합하니 하루에 만보를 걷게 된다.

“허리 펴요!” ”가슴을 주욱 펴요” ‘배를 내 놓고 걸어요” 집사람 구령에 맞추어 걸기를 한 3년간 하다보니 언제부터인가 집사람 구령없이 우리는 걷고 있었다. ‘허리 피라’고 계속 호령하는 집사람이나 듣는 나나 여간 힘든게 아니다. 싫어서 허리를 못 펴는게 아니고 아파서 못 펴는데. 그래도 집사람의 균형잡힌 식단 덕으로 당뇨약은 끊었고 몸무게도 그대로다.

구부정한 고통의 십자가를 이기고 이제는 능능하고 씩씩한 ROTC 장교로 임관할 때 처럼 부활한 기쁨을 가슴에 채워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집사람이 기적이라고 말 한다. 그렇다. 수술로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매일 만보를 걷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사순절에는 구부정한 웅고집 신앙생활을 깨트려 부수고, 바르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한다. 하나님 은혜로 ROTC 장교로 부활하게 하신 기적을 널리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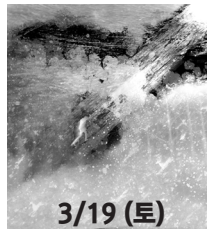
2월 4일은 입춘 (Spring is coming) 이다. 팬데믹을 쳐 부수고 이기는 봄이 오고있다. 얼음 바닥에도 새싹이 움터 오르는 새봄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 한다.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영원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새싹처럼 기다리는 즐겁고 보람된 날이 계속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수경 집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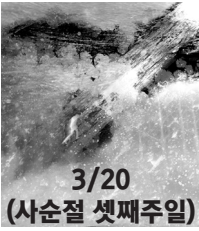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 2년간 저와 저희 가정을 돌아보니 정말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커리어와 자신의 성장에 욕심이 많은지라 풀타임 직장, 파트타임 대학원, 또 수많은 감투들을 쓴 만 세살 아이를 둔 엄마, 저는 정말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무언가 빨리 진행하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결정하곤 했지요.

코로나 시국인지라 2021년의 한 10개월은 아이와 남편이 함께 있는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틈만 나면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저는 어린 제 딸을 안고 미팅을 진행하고 일을 하고 집안 일을 하고 아이를 재워놓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정말 잠 잘 틈, 잠시 쉴 틈도 없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빠르게 지쳐나갔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온라인 예배도 어느 순간 드리지 않게 되었지요. 저희 가정에서 말씀과 찬양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고 저희의 영은 메말라 가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은 혼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마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9월 교회가 조금씩 문을 열고 아이를 데리고 선플라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아 맞다, 우리 가정은 교회 안에 속해있지.’ 라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저희 남편과 저는 부부청년부에서 총무 직책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 주에는 서리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격 하나도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년을 앞만 보고 달리다가 너무도 힘들고 지칠 땐 땅만 보고 한숨만 푹 쉬고, 도저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잖아, 내 안에서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요즘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신데 내 자리에서 바쁘다는, 힘들다는 여러 핑계로 고개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당신 안에서의 쉬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보라 III :오네시모

이영길 목사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늘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빌레몬 1:8-22)

‘연리지’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땅 아래의 뿌리는 돌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 따위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다가,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도 그대로 붙어 버리는 연리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충해를 입게 되면 한 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 한 몸이 되어서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 갈 수 있는 가지 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집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납니다.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가 서로 경쟁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존재 서로의 아름다운 보화를 캐내주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연 세계를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는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죄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연리지로 찾아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영혼의 보화를 간직한 꽃이 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바로 연리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었는데... 빌레몬은 자기를 해치고 떠난 오네시모를 처음에는 무척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곳에서 사도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바울을 통해 주님과 연리지가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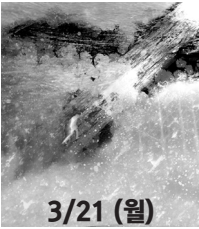
그 안에 영적 보화로 가득차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빌레몬은 오네시모와 더불어 연리지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빌레몬으로 인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된 것입니다.

Zusya라는 랍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Zusya가 되는 것이다.” 오네시모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연риз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와 연리지 관계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을 믿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울러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특히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과 연리지 관계를 갖게 되는 절기입니다. 서로 안에 있는 보화를 찾아 주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연리지가 되어서 우리들 안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보화를 찾아 주는 광부가 되는 것입니다.

(2021. 3. 7. 사순절 셋째주일 설교 중에서)



팬데믹 중에도 누리는 평안 (Peace in the Midst of Pandemic)

구용한 집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29)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사랑의 하나님 이 혼란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저희 모두를 위로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너무도 잃은 것이 많습니다. 허나 모든 사회의 정지로 인해 저희들 지금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저희의 삶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순간 저희 모두 아버지께 무릎꿇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눈 감고 절실히 기도 할 때 저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당신의 음성과 자연에서 흘러 나오는 아름다운 새소리도 이제 다시 들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신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실정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이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으로 찾아오 시게 도와주셔서 다친 마음부터 열어주시고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희 모두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미지와 DNA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지며, 그로 인해 참 감사와 평안 속에서 아버지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며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며, 당신의 목적 안에 속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삼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팬데믹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꾸지람

곽서영 집사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8-10)

2022년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꾸지람을 들으며 시작했다. 몇 가지 소소한 일들로 마음이 좀 상하고 내가 가진 단점들로 위축이 되었던 참이었다.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바라고 기다려 온 일이 거의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 망친 것 같은 실패한 느낌으로 나는 좀 속상하여 있었다. 선한 의도로 생각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섰기 때문에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 나를 야단치셨다.

몇 주 전에 구역예배에서 공부한 말씀의 내용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역대상 13장의 말씀이었다. 선한 의도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던 옷사가 죽고 그로 인해 다윗은 화가 나서 언약궤 옮기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내용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하나님이 날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주일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호통치시는 것으로 들려 시작부터 내내 울었다. 모세가 므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었는데, 모세가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셨다. 이어지는 설교 말씀에서 이 일이 있었기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다고 하셨다. 나는 더욱 평평 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신다. 결국 말씀 앞에 항복하여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우연히 창세기를 읽었는데, 뜻하지 않게 가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가인도 나를 정성껏 드린 제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은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아우에게 화가 났고 억울하게 느꼈을 것이다. 내가 아벨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도 좀 억울했다는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회개하게 되었다. 또한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을 위해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놀랐다.

하나님은 자상하셔서 당장 벌을 내리시지도 않고,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훈련하시니 감사하다. 아직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언젠가는 변화하여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아멘



공동체의 소중함

강현기 집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7-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고, 한 해가 잘 되길 기원하며 매해 지인들에게 돌리는 인사. 올해는 카드를 준비하지 못한 탓에 전화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새해 인사와 근황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오기전 7년동안 살았던 지역 교우에게 새해 안부 전하던 중 안타까운 소식이 아내의 전화기를 타고 전해옵니다. “교회에 어린이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탄식과 함께 ‘털썩’ 마음이 내려앉고, 짧지만 체감 시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로 믿음을 이어간다’는 말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여서 그런지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잠시 격양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차가운 물을 비웁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남겨진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자리에 앉아 천천히 아이들의 얼굴을 빠짐 없이 떠올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상황을 헤아려보려 잠시 애를 써봅니다. 주일이면 부모님 손잡고 가던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린이의 찬양소리가 멈춘 예배당, 어리기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닌 누군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어도 그리 할 수 없는… 주일마다 기쁘게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느끼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평화롭게 지내시던 하늘 보좌에서 날벼락 같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다시 오르셨으니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생애가 겹쳐지며 무겁던 생각과 어둡던 마음이 가볍고 밝아집니다. 남은 아이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 그동안 심겨진 믿음의 싹을 틔우고 세상의 비와 바람을 맞아 더 튼튼하게 자라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배의 꽃’이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스톤 한인교회를 바라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수님 사랑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펜데믹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아빠: 민우가 아기 때 다니던 교회에서 해바라기 같은 어린이 예배가 없어졌어.

민우: 문을 닫았어요? 왜요?

아빠: 글썄, 아빠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민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이야기해보요. 아빠 기다려요. (뒤적뒤적)

이거 (아끼는 반짝이 스티커) 아빠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와요.

아빠: 그럼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야?

민우: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빠는 하나님 집 알아요?

아빠: 어?!

가겠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 하지말라

노윤경 집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3/24 (목)

저는 가끔씩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 계신 나이드신 부모님들이 갑자기 더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제가 하는 일들이 자신이 없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저 혼자 걱정을 하면서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아끼는 가족들의 삶이 힘들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걱정을 많이 했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나마 좀 덜 걱정을 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만난 예수님 덕분입니다.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더 자유롭게 된 점에서 2021년은 제게 좀 더 특별했는데 그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매일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분들에게는 꼭 권유해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는 구절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매일 읽다가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걱정이 물밀듯 밀려오다가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걱정이 나를 덮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심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일때 나는 그냥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하게 살아있는 것 처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을때 나를 괴롭히는 걱정과 참이 아닌 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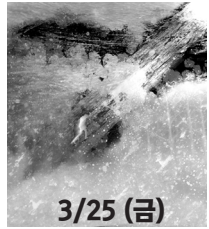
저는 사순절을 앞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바뀌기 전에는 잘 몰랐던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러나 십자가에서 철저히, 온전히 모든 것을 비워내신 분, 그분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의 자녀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비워내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심을 오늘도 읽고, 또 기억하는 축복을 여러분도 온전히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김학주 교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십자가에서의 죽음 후 부활하신 뒤 열한 제자를 다시 만난 예수님을 묵상하며, 어느 찬양가사를 나눕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신들의 무능했던 모습과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돌아 오셨지만, 어차피 본인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웠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속에도 돌아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도전의 말씀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테니 걱정은 접어두고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라.”

2022년도 사순절 기간에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기도, 찬양, 성도간의 교제, 그리고 이웃섬김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을 더 깊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One Thing I Ask

박재미 집사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this only do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Psalm 27:4)

When I first met Jesus in 2009, my life went through an incredible change. Even though I was born and raised in a strict Christian family, I had never experienced such joy in my life. The pure joy coming from worshiping him was unspeakable. There was nothing that I would trade for that joy in life. The feeling of finally being whole, of being freed from sin, and being deeply loved by God overwhelmed me. One day, Psalm 27:4 came to me and the verse became my life's phrase, and the only wish that I've asked from God: to become a worshiper like David. "Whatever I do, wherever I go, whoever I meet, I want to do for you and your name, Lord", I said in 2009.

How did you first become a Christian? What triggered you to live as his disciple, not as a fan or mere observer? We all have different stories; some are simpler and some are more dramatic. But common to all of us is the feeling of joy in worshiping God since we received salvation as a gift from the Lord. Like a child opening presents during Christmas morning, we received this grace as a gift full of joy and privilege.

However, our problem is we all easily forget about these; the first encounter, the joy of worshiping, and the determination that we made as Christians. To be honest, I'd forget these too, especially the joy of worshiping the Lord. Yes, it brings me smiles when I sing to the Lord. However, even during the service, my mind tends to slip away with worries of my life. That is when I became a Sunday Christian than a true life-long worshiper like David. By losing the joy and sincere heart of worshiping, I found myself living a Christian life full of overbearing burden and duty.

When I see our Sunflower children while I lead the worship, I see the pure joy in them. There is no fear of tempered joy and no worry of daily life, only sincere hearts. I see this not only during singing the worship songs but also during praying, reading the bible verses, even during offering their small white envelopes to the Lord. They do so full with joy and there is no burden from their daily lives nor do they need to prove themselves to anyone there. How they do that? I envy them.

Although I cannot physically go back to 2009, I wish the worship I offer in 2022 will bring out the joy of that time and the desire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throughout my life and to allow me to gaze on the beauty of the Lord. I surely have to learn from the Sunflower children. King David is known as an example of a Godly worshipper. God mentioned David as “a man after my own heart” and David surely kept his relationship with God as a priority of his life. In 2022, I wish I will become more aware of God’s presence, and praise Him during my day, wherever and whenever. David’s struggles in his life surely gave him agony but they never stopped him from worshipping the Lord. Rather the struggles encouraged him to become closer to God. Whether I’m delightful or broken, busy or relaxed, tired or energetic, I wish I can worship the Lord with a sincere heart as John chapter 4 tells us that God is a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Lord, I pray that my life worships you, in all the circumstances of life, throughout the day and as I drift into sleep at night, Amen



그 청년 바보 의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 후서 2:14-15)

숨이 멈추는 날 남는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책 [그 청년 바보의사]입니다.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찾아온 사람끼리도 서로를 모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버렸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가슴에서 고통이 멈추는 그 순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았느냐 하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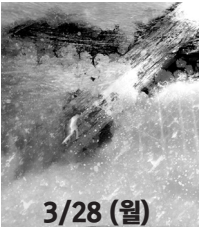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면 이제 그의 심장과 그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

(푸른 솔 blog에서 발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강문일 교우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7)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굴곡 없는 신앙 생활을 영위해 왔다.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기 전에는 의례 기도를 하고 수저를 들었으며, 일요일 아침에는 습관처럼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마침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그 교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는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교복 상의 안주머니에는 언제나 기도용 협회에서 발간한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들어있었다. 대학교를 다닐 때와 군 생활을 할 때에도 내 신앙 생활에 큰 위기는 없었다. 내가 다니던 교회의 대학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네 시부터 일곱 시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대학부 실무자로 예배를 준비하다보면 사실상 그 날 하루는 대학부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황금과도 같은 주말을 온전히 교회에서 보낸 덕분에 나는 애초에 신앙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사건을 마주할 일도 없었다. 늦은 나이에 입소한 농산 훈련소에서조차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실로암을 불렀으며, 카투사로 선발된 까닭에 군 복무 중에도 다니던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었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나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말씀에 익숙한 편이고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도 제법 가지고 있다. 물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만 적어도 일요일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스스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은 별로 없다. 물론 필요에 따라 신앙 서적을 읽거나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어 본 적은 있지만, 내 힘으로 성경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 굴곡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신앙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머리에 묻어 있는 알팍한 지식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든지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 그 분의 말씀과 사역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인정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배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 가실 때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계실 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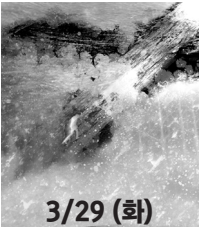
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닐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였다면,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였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 또한 그 자리에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뵈 수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예전처럼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대신 물고기를 잡으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마도 베드로는 스스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셨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던지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세 번 답하는 동안,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자책감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대속하신 양을 다시 맡기신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양을 먹이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의 일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한들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나 또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굴곡 없는 신앙 생활을 영위해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내가 베드로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삶에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복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언젠가 예수님을 직접 뵈게 되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내 마음을 담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삶 가운데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며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정은아 집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34)

보스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살롬” 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20년 7월 보스톤을 떠나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이주한 은남매네(은서, 은호, 은희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 교회인 보스톤 한인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있음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부부청년부 소식지에서 ‘사순절 묵상집 원고 모집’ 광고를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그 말이 사실은 아주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딱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예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더이상 아닌 곳에 살면서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 <중보기도>였습니다.

말로만 “기도 할게” 가 되지 않기 위해 적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주 통화하고 안부 묻는 것을 잘 못하는 대신 오래오래 잊지 못할 사랑하는 친구들, 고택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이 전해주는 소식 속에서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한 바탕 웃기도, 울기도 하는 등의 깊고 깊은 교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사귄, 이것이 막연하지만 제가 정의한 <중보기도>의 일부입니다. . . 예수님께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 하시며 아주 많은 순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며 기도 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까지도...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시며 전능한 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동감해 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프면 나도 아파, 너희가 기쁘면 나도 기뻐, 너희가 울면 나도 울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면 말할 수 없는 따스함과 안도감이 들고 혼자자 아니라는 충만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준다는 말은 “너의 기도제목이 곧 나의 기도제목이야” 라는 말일테고 “너에겐 내가 있어, 너와 함께 할게” 와도 같은 말일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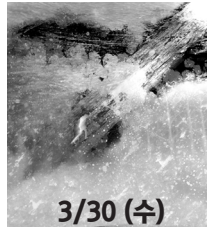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작한 계기가 뚜렷하게 있기도 하지만...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기도 속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중보기도>가 문득 떠올라 글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근원은 “우리를 대신하여” 인데 그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의 이름이 “중보자”였음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예수님의 마음이 향했던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고 <중보기도>를 통해 “사랑해, 소중한, 축복해” 이야기 해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희 가족도 보스톤 한인교회를 기억하고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에서 비행기로 다섯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기도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7)

Netflix에서 뜨고 있는 Drama, All of us are dead. (좀비라고도 하는)를 지난 두 주일 동안 다 봐 버렸다.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호소에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경멸하는 태도로,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인 안정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선생들의 모습에서 어이없는 현실을 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든 대화에는 단절과 냉혹함뿐이다.

늘 학교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또 약육 강식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천재 과학 선생이 만들어 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그 전염의 속도와 그 형태의 무시무시함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교 청소년들을 통해 처절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바이러스 세계에서는 약육 강식이 실현되고 있었다. 몇 명의 학생들만 그들의 용기, 배려, 희생, 사랑과 기지로 살아남게 된다.

나는 참으로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 안정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무엇을 더 바랄것이 없는 특권을 누리며, 때로는 이 특권은 노년에 마땅히 누려도 된다는 타당성을 강조 하면서 살고 있다. 천국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누리기 위해 ???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본 것은(보통은 지루하거나 재미 없으면 끝까지 안 본다) 안전지대 밖의 사람들의 처절한 위험과 아픔을 느껴 보기 위함이었다. 특별히 장애에 대한 불안과 공부와 친구 관계, 이 모든것이 불 확실한 청소년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떤 목사님은 입 버릇처럼 청소년의 자녀를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말해 주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이와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남편과 나는 pop corn 기도를 한다. 우리 기도의 율타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계속 번갈아 하나님께 탁탁 pop pop 터뜨려 올려 드리는 기도이다. 이 많은 제목들을 간절히 올려 드리면 하나님의 정확하신 시간과 계획하심 중에 응답 하실 줄 믿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노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깊이 고민해 본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나도 품어 우리의 기도 율타리안으로 들어 놓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선혁 집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4-5)

나의 감은 눈 안에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누더기처럼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오랜시간 제대로 먹지 못해 뼈가 앙상해 보였습니다. 형클어지고 수더분한 머리와 수염을 다리 사이에 박고, 마치 돌처럼 굳어있는 엎드려 기도하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메마른 눈물자국을 보니 아마도 꽤 오랜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고된 노역을 마치고 빛이 들지 않아 어두운 골방에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엇그제 도착한 편지가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사모하는 예수님을 보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무엇이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홀로 엎드려, 쏟아져 내리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수밖에 아무 것도 할게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며칠이고 몇달이고 몇 년이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와 섭리를 말씀해 주시기를, 자신이 마주한 현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리감에 고통하는 자신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가운데 미치지 않고 제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자신이 진리라고 가르쳐 준 복음을 지키기위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숨이 멎는 슬픔과 자책가운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느날 그 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영광의 그분이 약속의 두루마리를 보이셨다고. 삶의 풍파로 바라보기에 도 애처로운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천사가 힘있게 소리쳤다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소리쳤다고. 하지만 하늘과 땅 위에 아무도 능히 두루마리를 뿔 자가 없었다고. 이내 그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눈물을 쏟아내며 크게 울었습니다. 절망의 목소리로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크게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간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보고싶다며 그렇게 끼이 끼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노인은 마음을 다잡고서, 잠시 눈을 감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늘에 보좌 앞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고.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뿔 자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늘 보좌를 살펴보니 내 눈에 누가 보이는지 알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감은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늘을 향하였고, 저는 그의 주름진 얼굴에 퍼진 작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랑하는 친구를 본 것처럼, 그렇게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금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감은 눈을 뜨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오열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끝내 그는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감격에 오열하는 그에게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감은 눈에 비친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계시록의 그의 말씀을 보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2000년전 겻세마네 동산에서 눈을 감고 십자가를 지시기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감은 눈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영광의 보좌가 보였을까요? 아니면, 허름하게 수용소 골방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요한이 보였을까요? 웬지 예수님은 요한을 보며 함께 오열하셨을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질터이니, 너도 승리하라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기도가운데 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신이 보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순종과 고난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참 오랜시간 저는 요한의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기 보다, 이 삶의 안녕이 더 갈급했습니다. 주님, 순종과 괴로움이 없는 믿음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보이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게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를 보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름없이 빛도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최페이지 집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1-2)

결혼으로 보스턴에 와서 교회를 섬기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간다. 다행히 교회 공동체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미국살이에 잘 적응하던 중, 매주 듣는 너무 은혜로운 성가대의 노래에 매료되어 4년 전부터 성가대 대원과 총무로 섬기게 되었다.

노래를 잘 하고 싶은데 소리를 내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바 첫 6개월은 립싱크(?)로 임했고, 쉬는 날은 개인 레슨도 받았다. 연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끔 나오는 소리도 조심하던 중, 매주 하다보니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니, 근거없는 자신감에 남편에게 “여보, 나 소리 좀 나오는거 같아” 했더니 남편은 “소리를 안 내겠다고 한 초심을 잊지말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성가대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불편한 마음 한편에, 그래도 총무로도 섬기며 복사하며 매주 대원들에게 찬양 안내 및 악보 준비를 하는것으로 성가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다.

감사하게도 성가대원 분들이 내가 하는 수고에 비해 “너무 수고한다, 고생한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너그럽게 봐주셨다. 그러나 그 실상은 총무로 섬기며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다. 첫번째는 성가대원 분들께 이메일을 쓰며, 찬양가사를 프리젠테이션팀에게 보내며 보석 같은 찬양가사 한자, 한자 타이핑 하면서 쏟아지는 은혜와 아침 일찍 찬양대 연습하며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꾸고 싶지 않다. 내가 총무를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피곤에 지쳐서 한 순간이라도, 혹여 이 일이 귀찮아지는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가장 조심했던 것이 ‘마음가짐’ 이었는데 다행히 봉사하면서 받은 은혜가 더 많아서 아직도 감사함으로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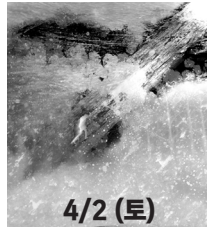
지난 주 서리집사 직분을 받으면서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직분을 받아야 하나”라는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 예배 마지막 찬송가에서 해답을 얻었다. 바로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마지막 3절 중 “이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이다.

하나님!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잊지 못할 사람

김문소 장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재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2, 47)



어제 이렇게 카톡이 왔다. “마음 뿐이네요. 세월은 살같이 흐르고, 새해 댁내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 부부 드림” 30여년전에 같은 구역에서 활동하던 좋은 옛 동지로서 제가 10여년간 구역장할 때 든든한 동역자였다. 반가웠다.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다.

구역 재편성으로 상록회 회원들이 제일 많은 교회 근처 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제는 비교적 젊은층 구역원이 되어 어르신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역 활동을 또 10여년 했다. 그 어르신들이 지금은 대부분 하늘 나라에 가셨는데 잊지 못할 어르신들이다.

주일 성인 성경공부반이 새로 생겨서 참여하게 되었다. 젊은 반장님이 “말씀과 함께”, “킹덤 라이프” 교재를 미리 열심히 예습해 와서 반원들을 이끌어 가니, 특히 배운 말씀을 매일 매일 생활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반원들 각각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또 처음 믿는 가족이 구주를 영접하여 기쁘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다. 나도 덩달아 신났다.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받은 큰 사랑을 한껏 나누며 성경 공부하고 싶다.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말씀 공부로 새 사람되고 싶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보라 IV : 기쁨

이영길 목사

4/3

(사순절 다섯째주일)

이에 보아스가 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중략)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4:13-17)

Mark Twain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days of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이고 또한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다.)

나오미는 오벳을 안고 친구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꼭 필요한 인물의 조상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었더라면 오벳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도….

물론 오벳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모압 지방으로 어머니 길을 따라 갔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길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오면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통의 노래를 불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도 어머니의 길을 걸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걸어 오시면서 때로는 나오미처럼 이런 말을 되뇌곤 하셨을 줄 압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하나님.”

나오미처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나 나오미처럼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은 지금도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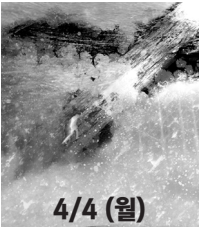
오늘 또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 자료가 됩니다. 하물며 매일매일의 헌신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잘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 못된 선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뒤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2천년 전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 곧 잘못된 선택들을 뒤바꾸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2021. 3. 21.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설교 중에서)





동행(Abide)

송미자 권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17)

4/4 (월)

남편 고 김현 장로의 삼 번째 되는 추모일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2월 26일은 그의 76세 생일(25일) 다음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같이 남편과 나는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퇴근 후 귀로 두 갈래 갈림길이 가까워지면 나는 늘 그렇게 전화합니다. “집으로 갈까(일하고 피곤해서), 아니면 YMCA(exercise)?” 남편한테 들을 대답을 늘 알면서도, “당신이 알아서 하라”.

난 2008년 넘어지면서 왼쪽 대퇴골(femur) 골절로 연속 3년을 수술받았습니다. 이 일로 YMCA에 가입하고 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몇 번을 전화해도 응답이 없어 아마 전화를 집어두고 갔나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와 보니, 그는 집에 없고 전화기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45분경, 전화가 울려서 받으며 “당신이야?” 하려는데 전화선 넘어 “...calling from Rhode Island Hospital.”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혼수상태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하고 있었고 결국 작별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난 남편이 남긴 것은 잘 알지도 못했던 그의 일들이 나에게로... 깜깜한 터널 속에 던져진 느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지하실 그의 책상 위의 서류를 들치면서 어느덧 2019년이 저물며 남편의 사업체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COVID-19! 나를 완전히 혼자로... 사실 혼자라는 말은 외로움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나 자신과 말을 하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남편이 갔음을 받아들이며, 비록 그가 실제로 나와 같이 있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면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착각과 나를 바닥으로 끌어 당기는 슬픔을 느낄 때, 그가 고이 잠든 그곳을 자주 찾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던 어느 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다’ 남편의 잃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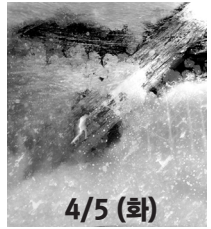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찬송가 427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기에...
(He abides with me every day) 아멘

당신의 팬데믹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2) 윤병준 집사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7)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Heidelberg Catechism), 그 중에서도 첫번째 문답을 특히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 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in death? (답)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That I am not my own, but belong - body and soul, in life and in death - to my faithful Savior, Jesus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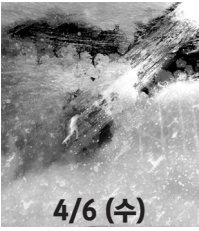
살다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자신감과 기대로 가득 찰 때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슬프고, 두렵고, 지치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때마다 이 문답의 내용이 제게 위로가 되고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든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에, 그래서 그분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모두 마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완전한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앞의 글에서 아버지께서 투병중이실 때 아버지를 위해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소책자를 번역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때 번역했던 소책자 내용 가운데 네번째 챕터의 내용을 다시 나누어 봅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팬데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보니, 나는 팬데믹 중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있었는지 새삼 되돌아보며 부끄러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의 생존확률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 그것은 팬데믹을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팬데믹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존확률을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확률계산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거의 수를 세고 (생존확률을 계산하고) 어떤 이들은 말의 수를 세어보지만 (백신과 치료 방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따져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시20:7).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수많은 좋은 것들과 더불어서) 팬데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서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오로지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팬데믹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Isabelle, Come back home

김희진 사모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 20)

늦은 저녁, 현관 문을 열자, 키가 훌쩍 자란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말한다. “엄마, souvenir (기념품)은요?” 아이의 포근한 유머에 웃음을 건넨다. 드디어 집! 이라는 안도감에 긴장이 녹아내린다.

시내외출이라, 만반의 준비를 했다. 컴퓨터레일을 타면 편도 1시간 반이니 도착은 느리지만, 기차 안에서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일을 잘 마치고 저녁 5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만 남았다. 해가 지니 날카로운 바람이 옷깃속으로 스며들고 어둠이 주위를 덮었다. 도착하자마자, 편해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시원하게 속력을 내는 기차가 더이상 흔들리지 않자, 차장이 티켓을 검사하러 오고 있었다. 티켓 규약 코드를 보여주면서 직감했다. ‘이런!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상은 다르지 않았다. 바깥 풍경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집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차장이 확인해주었다. 한 구간이 긴- 컴퓨터 레일은 하루 종일 머문 곳보다 집에서 더- 먼 곳으로 거침없이 향해 달렸고, 낯선 역에 내려주었다.

우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과 위치를 알렸다. “거기 가만히 있어, 데리러 갈게” 고마운 말이었다. 조금 늦을 테니 집에서 보자며,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은 자존심이 었나 보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편하고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더니. 그래도 내 발로 씩씩하게 돌아가 보겠다는 마음이 더 컸다. ‘침착하자, 충분히 집에 갈 수 있다’ 어둠은 짙어가고 다음 기차는 1시간 후에 도착한다는 사인이 보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플랫폼 군데군데 <서성거리지 마시오> 경고문이 쓰여있었고, 비둘기 한 마리가 처량해 보였다. 모자를 눌러쓴 사람은 구석에서 담배를 피웠다. 저녁 7시인데 이거 현실이지?’ 순간 영화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깜깜하고 고요했다. 영화 속에서도 작은 선택으로 결말이 달라지니 좁고 어두운 이곳보다 빛이 보이는 곳을 찾아 걸었다. 한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시간이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거 같았다. 기차를 타야 하니 너무 멀리 가지도 못했다. 주변은 횡한 바람이 가득해 상황을 떨쳐 낼 방법이 필요했다.

놀이처럼 묻고 답했다. ‘넌 왜 여기 있지? 어떤 아이였니?’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데 길을 잘 잃어버려. 차분히 준비를 해도 그러니 어처구니없다 정말. ’어제, 오늘일이 아니긴 해.’ 근처 공원을 걷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내비게이션 도움없이 집을 나서는 게 어렵다. 괜히 마음이 더 작아진다. 다행히 주변에는 “거기 있어. 내가 갈게 “ 하며 도와주는 ‘천사’ 친구들이 있었다. 일부러 찾아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전화로 도움을 주기도 한 고마운 친구들이 떠올랐다. 종종 내가 어디를

가는지 헤매다가 정지상태가 되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멈춰있던 시간처럼, 믿음 생활도 그랬다. 모르는 길에 대해서 각자 이 방법이 빠르다, 쉽다, 맞다 논쟁을 할 때, 나는 말하는 대신 듣고,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따르는 편이 좋았다. 그러나 부족함을 알고 도움을 구하는 것과 부족함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숨어서 가고 싶은 곳에 맘껏 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나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혼자서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죄성을 느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을 때, 용기 내어 한 발 들다가 울고, 다시 무너지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집의 평안함을 원하고, 아버지 품이 그리워, 그 집이 나를 향해 열려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이 나를 두렵지 않게 지켜주셨다. 한 마리, 두 마리, 여러 마리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예수님,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에 크게 숨을 마시고 내쉬었다. 호흡이 이런 거구나. 여러 번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고 살 것 같았다. 날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 곁으로 다가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둠 속에서도 섬세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서서 울고 있을 수 없었다. 나를 이대로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선물로 믿어진 순간부터.

여전히 공기가 차가웠지만, 알 수 없는 따뜻함에 기운이 났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나를 찾은 제대로 기분이었다. 다시 기차가 정적을 깨며 도착해서 반가운 마음에 성큼 올라탔다. 구글 맵으로 내 위치가 점점 집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찰떡인 도구여라고 감탄하는 건 잠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곁으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평안’ 그 자체라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맞다. 이 와중에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촬영감독이 되어 마음속 평생 간직할 영화 찍는 중이다. 두려운 순간, 영화처럼 내가 선택한 장면으로 유유히 이동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기차 안에서 온기를 찾을 때쯤, 눈에 익은 표지판이 보인다. 남편이 추운데 고생했다며 기차역에 마중 나와있다. 두려움도, 의기소침도 사라지고 살 것 같은 이유는 집이 보이기 때문이다. 실수로 2시간 늦게 집에 도착한 것뿐인데, 오래 간직하고 싶은 명장면이 남았다. 길을 잃었을 때,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넘어져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 오늘 여정 중에 꼭 전해주고 싶은 기념품이라고 아들에게 마음으로 건넸다.

금홍의 하나님, 이미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둠속에 머물러 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중...

정광근 집사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서 26:13)

4/7 (목)

이미 2년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찾아온 작고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운지.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여 보려 애쓰지만 또 멈춰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 서 보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무절제한 낭비와 사치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늘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절망 뒤에 꼭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마치 잘못된 자녀를 야단치고 나서 울고 있는 아들, 딸을 꼭 안아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인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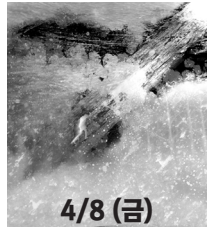
그래서 이 환난이 떠오르는 태양에 새벽안개 사라지듯 사라질 때 더욱 힘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청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그때 더욱 지금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들음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새깁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들으면 즉시로 순종하는 복된 회복의 시작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더욱 특별한 들음의 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 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명을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회복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찬양위에 매는 사랑의 띠

이주원 집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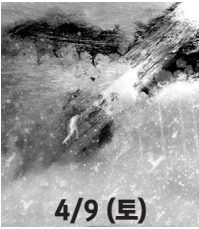
텍사스 어스틴에서 보스턴으로 당시 만삭의 아내와 함께 보스턴에 온 지 벌써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 보스턴 공항에 도착해서 이사할 새집으로 가는 길에 쌓인 눈을 보고 서로 신기해했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 아내 뱃속에 있던 아이와 또 다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고 그렇게 우리 네명은 보스턴에 현재까지 잘 살고 있다.

보스턴에서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특히, 두 아들들은 식욕이 왕성하여 나의 걱정을 더욱 더 가중시키기도 하였는데 그것 또한 돌이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 더 감사한 일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 싶다. 부부 청년부에서 4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 그리고 너무 성장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올해 부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도록 하셨다.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가장 분주한 시기가 어쩌면 지금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이만큼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대부분의 부부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그들 앞에 서서 섬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지난 주 부부청년부가 1년간 쓰게 될 표어를 정했는데 그 표어가 심하게 아름답다. ‘풍성한 말씀, 감사하는 찬양, 온전히 매는 사랑의 공동체’. 듣는 순간 우리 부부청년부를 가장 잘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동체를 만났고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섬기게 되면서 가끔 그 안에 사소한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럴때 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들었었다. 우리 표어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면서 올 한해 동안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섬김 위에 사랑을 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올 한해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지워주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와 부부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해가 되길 바란다.

풍성한 말씀, 감사하는 찬양, 온전히 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충만함을 입은 자들과 탐욕에 불잡힌 자들

홍영희 권사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사도행전 4: 1- 20)

사도행전 4장을 읽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여, 나 자신을 말 씀에 비추어 보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앓은뱅이였던 걸인을 고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고친 것이니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을 때, 그 곳에는 이미 말씀을 듣고 믿게된 예루살렘 사람들 남자 오천 여명과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앓은뱅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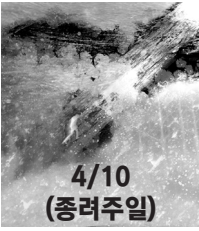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분야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만큼, 그 자리는 보통 사람들,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과 거지에게는 겁나고 위축되고 무서운 자리였을 것이고, 더구나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질책 하였을 때에는 무서워서 아무도 사도들의 편을 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성령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병 나은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그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던 것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사람들은 지도자들, 권력층 사람들이다. 자칭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 한다고 자부하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남을 해치고 빼앗고 이용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 어느덧 만성이 되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인지 깨닫지도 못하며, 계속 죄를 짓고 사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믿음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만심, 드러나지 않을 만큼의 이기적인 생각, 또 내가 옳다는 생각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내비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는 않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쉽게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 수많은 생각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다. 나는 깨달음에서 멈추지 말고 잘못하는 것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는 삶으로 바꾸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충만함을 입어 상황에 개의치않고 두려움없이 예수부활을 증거 하였듯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도들 옆에 담대히 서서 힘이 되어줄 수 있었듯이, 저도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과 성령충만함을 얻어, 끊임없이 자신의 속사람을 성찰하며 주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보라 V : 큰 대제사장

이영길 목사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14-15, 5:7-10)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워지는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3년전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십니다. 외과의사로서 거의 30년을 선교지에서 몸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특히 의사가 없는 필리핀 두메산골을 찾아 다니면서 환자들을 고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박 선교사님은 수많은 질병을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열대지역이니 1종전염병마다 다 걸리셨습니다. 장티프스, 콜레라, 이질, 뎅기열, 췌장염, 담석, 당뇨... 이뿐 아니라 췌장암도 걸리셨고 다행히 일찍 발견해 완치가 되었지만 위암도 걸리셨습니다. 14년만에 위암이 재발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려면 건강해야 하는데 자꾸 온갖 병을 주시니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셨다고 합니다.

“건강해야 더 잘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차가운 응답은...

“너는 의료도구도 별로 없고 청진기 하나로 진찰하고 있으니, 네가 아파 봐야 잘 진료할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는 없으시지만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몸소 연약한 몸으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실은 박누가 선교사님은 의료장비는 부족해도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셨습니다. 비결은 본인 스스로 모든 질병을 아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죄로 인한 고통을 겪으시기 위하여 연약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로서 모든 인간의 약함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서는 연약함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5: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박누가 선교사님은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병으로 인해 기도드렸습니다. 아울러 자기의 병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이웃을 위한 놀라운 치유의 힘으로 나타나곤 한 것입니다.

한편 주님도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기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곧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기도로 주님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뜻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드렸다고 했는데 실은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죽으신 것입니다. 무슨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겿세마네 기도가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4: 36,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응답은 ‘NO’였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No’에 불순종할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9,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역설적으로 주님도 구원받으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 가신 것입니다. 승천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2021. 3. 28. 종려 주일 설교 중에서)



어깨 위의 짐...

캐들린 롱 보스트롬 목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칩니다.

높은 하늘에서 호산나!

호산나~~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다니,
소박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귀는
짐이나 싣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짐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어깨에는 그날 많은 짐이 있었습니다.
그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더 많은 짐이 올려질 것입니다.

주님, 저도 짐이 되는지요?
제가 그렇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저는 고침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안아 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안으시고
그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PW Horizon Bible Study-2005-2006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에서 발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나니, 호산나! 아멘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서 9:25)

전에 다니엘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는 시기를 예언한 기록이 있음을 알고 흥분된 마음을 갖은 적이 있었다. 이 예언의 말씀은 9:24-27에 나온다. 다니엘서 9:24-27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그중에 전통적인 해석은 어거스틴이 처음 말하였다. 이 외에도 자유주의 학파의 해석, 세대주의 학파의 해석들이 조금씩 다르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였다. 그는 포로생활 70년이 지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구원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70 이레”를 전하였다. (1이레는1주일을 의미함)

70이레 끝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운데 주님께서 초림하신다고 했다. 사죄의 해와, 영원한 의와, 구원의 축복이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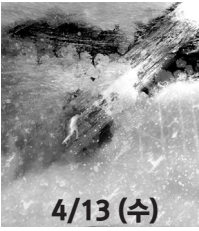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 (7+62=69 이레, 69 times 7=483년)가 지나갈 것이요”라고 하였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고레스 왕 원년(538 B.C.)에 내려졌다. 바로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해이다. 이때에 유대인들에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해인만큼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이 시작된 해) 25절은 이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역대하 36:22-23 에스라:1-14) (예레미야 29:10 이사야 44:28, 45:13)

25절의 기름부은자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26절에서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후에 (A.D.70)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Titus)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 되었다

(**제 생각에는 483년과 538년 과의 차이는 양력과 음력 및 유대력의 서로 다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주님께서, 예언하신대로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찐자유의 비결

정유미 집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12년전에 한국을 떠난 나. 타국 땅에서 영어는 영 늘지 않고 그나마 한국말마저 퇴보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만난 신조어는 얼른 저장해두었다가 기회가 생기면 사용해본다. 몇년 전, 만난 ‘찐’ 이 그 중 하나다.

찐친구, 찐우정.. 앞에 ‘찐’ 만 붙였을 뿐인데, 제법 참신하다. 재밌다. 그래서 또 써 먹었다. 카 좋다. 입에 착 감기며 대화에 글에 감칠 맛이 난다. 역시 한국사람에게는 한국말이 최고지.

팬데믹으로 일상을 잃은지도 근 이년이 되어간다. 고3 수험생 시절, 우리는 이를 악 물었다. 수능시험만 끝이 나면.. 대학에만 가면.. “나는 자유다” 당시 매스컴에서 나오기 시작한 ‘X세대’ 라는 말은 웬지 ‘쿨’하게 느껴졌고 기존 세대가 누리지 못한 더 특별한 ‘자유’ 를 약속하는 것 같았다. 90년대 중반, 자유를 만끽했던 우리는 25년 후에 닥쳐올 팬데믹을 단연코 상상하지 못했다.

2022 팬데믹으로 인해, 온전히 누리왔던 ‘자유’ 를 잃어보았다. 갑자기 자유를 잃고 일상에 ‘제약’ 을 받은 나는 혼란스러웠다. 우울이 분노로 바뀌어 갔다. 답답한 와중에 지인들과의 카톡 대화는 종종 이렇게 끝맺는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꼭 만나자” “코로나가 끝나면 00에 가고 싶다. 꼭 같이 가자” “옛날의 자유가 그리다.” 라고..

빛바랜 ‘자유’ 의 민낯 앞에서 나는 영원하리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찐’ 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즈음 30년지기 친구가 한국에서 글을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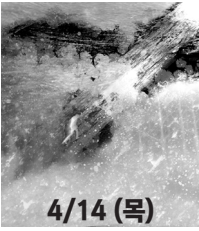
.....사도바울은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였습니다.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수 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낮은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였고 심히 가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론 배부르기도 하였고 풍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 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우다(뒤에오)” 라는 말은 어떤 은밀한 종교에 가입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인 특수한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고생들을 겪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비결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중략>..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은 그의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되는 힘에 의해서다” 라고 말한 것에 비결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NIV영어 성경은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고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through him’ 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이하생략>



주님이 주신 힘으로 아버지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

김현범 교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이의 총만함 이니라” (에베소서 1:23)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사탄을 패배시키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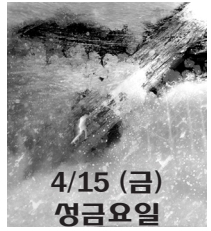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18).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확신하는 신자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흔히 오해하듯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특정한 조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성경은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로 있는 신자들은 더이상 개인주의적이나 자기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가 되었음으로 더이상 분열되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써 불필요한 곳이 없으며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이며,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토록 다른데도 하나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존재요,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믿고 서로 ‘지체’라 부르며, 한 가족인 것을 믿고 서로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모든 것을 공급 받으며 총만하게 살아갑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교회는 온전하며 총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4/15 (금)
성금요일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28)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물은 낫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우물은 자주 등장하고요. 야곱의 우물도 있습니다.

오래전엔 수도가 귀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있는 집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펌프를 달아 놓은 집도 있었고요. 읽었던 글 중 한토막입니다.

사막을 걷던 목마른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반갑고 급한 마음에 물가로 달려갔는데 마주한건 수동 펌프였습니다. 펌프 옆엔 물 한 바가지가 놓여 있었고 메모지도 붙어 있더라고요. “이 바가지 물은 마시지 마십시오. 대신 이 물을 이용해 물을 퍼 올리십시오. 퍼올린 물은 마음껏 드시고 담아 가십시오. 그러나 뒷사람을 위해 물 한 바가지는 꼭 남겨 놓으십시오.”

바가지물을 마중물이라 합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데, 뜻도 깊습니다. 앞서가며 마중물을 남긴 이들은 많습니다. 우물을 손수 팠던 선배들도 여럿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뒤따르는 우리 마냥 시원한 물을 얻어 마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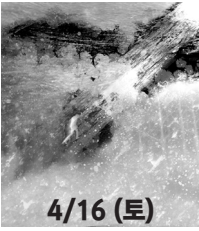
음수 사원 飲水思源. 이영길 목사님 설교 중에 인용된 사자성어입니다. 물을 마실 적엔 우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갈급한 우리에게 믿음의 샘과 우물을 팠던 신앙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앞서 마중물을 남겨놓았고, 메모를 적어 놓은 분들에게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레박이나 펌프질 없이 우물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건 내 몫입니다. 마중물을 남기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고난중에도 물길을 찾아 우물을 파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마중물까지 남겨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목마르다고 마중물까지 마시지 않게 막아 주소서.

주님은 목이 마른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파고 남기신 우물물을 한 모금도 맛보지 못하셨습니다. 심히 목말랐을 주님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마중물은 꼭 남기고 길을 따르게 허락하십시오. 아멘



A New Temple

김수영 목사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men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area,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ese out of here!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John 2:14-16)

Earlier this week, I read a short story book called, “Goodbye brings hello.” I liked the stories there, but the title of the book remained in my heart for a long time. “Goodbye brings Hello.” Sometimes, we need to say goodbye to someone we love, and it’s hard. We may be very sad. We may not feel like eating, sleeping, or even talking to anyone. But this book says that each goodbye brings a new hello. When we ride a swing, we push the earth away saying goodbye to earth, but as we go up, we say hello to the blue sky. When we get a haircut, as we say goodbye to our long old hair, we will say hello to a new style and a new smile. Just like this, we sometimes have to say a very sad or difficult goodbye, but this may bring us new hope. And today, we are going to meet Jesus who had to say a hard goodbye.

In today’s scripture,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a big holiday called, Passover.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at holiday was to bring animals to the temple as sacrifices. Since the animals had to be perfect, many people just bought the animals when they got to Jerusalem at the temple. Other people sat at tables to exchange the Roman coins for temple coins because the Roman coins could not be given to the temple. When Jesus entered the courtyard of the temple and saw all of these, he grabbed a piece of rope and whipped it around to drive them all out of the temple. Cows ran, sheep cried, and pigeons flew from their cages. Tables fell over, and coins rolled all over the floor. It was chaos! And Jesus said to the pigeon sellers, “Take these things away; do not make my Father’s house a house of trade.” (John 2:16) Do you notice the strong feelings of Jesus here? Jesus was actually saying a hard goodbye to the old temple, old faith, this well-settled faith system, and familiar ways of worship. And as he cleaned things out in the temple, he was making space to say hello to a new temple. How do I know? Later in this chapter, some Jewish leaders who had seen what Jesus did asked, “What sign do you show us for doing these things?” Then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Jesus was not talking about the temple building here. Jesus was talking about his body as the new temple who would be also whipped, broken down, but risen in three days. Jesus was sad to see this holy and beautiful temple, faith, and worship losing its purpose and meaning, so he had to say goodbye and cleaned it out.

And just like the flowers bloom at the end of the branch, Jesus envisioned that the new temple, the new grace, and the new commandments will bloom at the end of this goodbye.

Dear Ransom Youth Group, and Sunflower Children, As followers of Jesus, we are on the road again in Lent, 40 days of walking the way of repentance, renewal, and reconciliation. Every Lent, our journey turns out to be very challenging, exhausting, and sometimes even frustrating, full of bumps and holes, losses, and tears... That we may need to say goodbye to some of the things we love. But goodbye brings hello because Jesus has built up a new temple for us. So let's keep this journey of Lent together as we clean our own temple to make space for the true temple who is Jesus. Then we will be a living sanctuary where Jesus dwells. Then, we will see the flower of salvation would be blooming within us.

Prayer – Lyrics of Children's Favorite Song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for You.**

2021년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삼세대 예배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설교(발췌)





이 모든 것을 보라 VI : 부활의 사람들

이영길 목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빌립서 3:7-12)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고난과 죽음을 피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없는 곳만을 찾아 다니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백신을 맞은 자들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올해 교회 표어를 주제로 6차례 ‘이 모든 것을 보라’ 시리즈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며 천사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라.”

어떤 사람들을 보라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십시오.

부활의 백신을 맞은 특권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십시오. 부활의 확신 가운데 항상 웃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아폴로 14을 타고 우주 비행을 했던 우주인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 우주인은 세 명이 타는 우주선을 혼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달의 뒷쪽으로 가면 태양과 지구가 보이지 않은채 달의 1/4을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칙흑같이 깜깜한 어둠을 지날 때,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된다. 우주선 온도도 떨어지고 정말로 축축한 느낌으로 가득차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 온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느낌을 갖게 된다.” 아마 창문을 통해 햇빛이 갑자기 들어 오는 것을 보면서 놀람 가운데 폭소를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지날 때 때로는 축축한 느낌에 압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는 예고도 없이 섬광처럼 부활의 세계가 찾아 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할 때 최고의 폭소를 터뜨리게 되지 않을까요? 남은 한 해 자주 자주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찾아 올 것입니다. 그 때마다 부활의 백신을 맞은 자답게 폭소로 답하십시오. 폭소를 터뜨리며 앞으로 달려 나가십시오. 이 폭소를 매일 매일 하늘나라까지 전달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21. 4. 4 부활주일 설교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KCB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617.739.2663 / www.kcboston.org

홍보출판위원 : 김한나, 배광현, 정유미, 정은아, 윤경문
표지 디자인 : 배광현